metro®
메트로 2014년 8월 21일 목요일 제3040호 www.metroseoul.co.kr

잠실 싱크홀 대책마련 촉구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이 지역 싱크홀 문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송파구 일대에서 잇달아 발견된 여러개의 싱크홀과 석촌호수 지하수 유출 논란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LG전자

곡면 스크린 전쟁 불붙다

내달 UHD TV 출시 계기 차세대 시장 선점 경쟁
기술력 앞세워 아시아 넘어 유럽·미국 공략 나서

더욱 휘고 선명하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큰 곡면 스크린 전쟁을 펼친다. 중국 기업의 매서운 추격을 따돌리고 차세대 TV 시장을 선점할 지가 관건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 'IFA 2014'에서 105형 커브드 UH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도 IFA에서 동급의 UHD TV와 21 대 9 화면비의 곡면 모니터 등을 공개한다. 각 기업은 보급형부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모델까지 다양한 상품 발굴로 시장 공략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고화질 화면에 어울리는 고출력 스피커와 인체공학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UHD TV는 기존 HD TV 화면보다 4배 이상 해상도가 높아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선사한다. UHD TV는 현재 전체 TV시장에서 한자리 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3년 이내 관련 시장이 3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화관 비율의 화면비와 곡면 스크린은 안정적인 시야와 뛰어난 영상미 제공에 적합하다. 곡면 스크린 특유의 우아한 디자인도 강점이다. 각종 IPTV 서비스와 N스크린 콘텐츠 활성화는 집에서 프리미엄 TV를 즐기려는 수요를 부채질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차세대 TV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유럽의 60형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금액기준으로 53.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46.4%보다 6.7%포인트 오른 것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체 TV 시장과 UHD TV 부문에서도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였다. LG전자는 전체 TV 시장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추격세가 매섭다. 중국의 대표 IT기업 하이센스·스카이워스·하이얼 등도 IFA에 선보일 TV 신제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기업은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반면 IT 명가로 군림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중이다. UHD TV 시장의 경우 올 상반기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이지만 2위와 3위는 각각 하이센스와 스카이워스였다. LG전자는 일본 소니(5위)보다 한단계 앞선 4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경쟁 포화상태인 동아시아를 넘어 프리미엄 TV 최대 시장인 유럽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두 기업의 유럽·북미 대상 UHD TV는 모델과 가격대가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하다. 삼성전자는 105형 커브드 UHD TV 판매를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먼저 시작한다. LG전자는 34형 21 대 9 곡면 모니터를 IFA에 선보인 이후 다음달 말부터 북미와 유럽 무대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두 기업은 북미 시장에서의 UHD TV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모델에 대한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벌이는 중이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TV 제조사들이 대형 LCD 패널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과 LG전자의 전략적 UHD TV 판매 확대와 미국 경기회복 영향 등으로 관련 시장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軍 구타·추행 등 '만연'

육참총장 "개선없는 부대는 해체"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육군 부대에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군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육군은 20일 "최근 부대정밀 점검과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다수 확인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 모 부대에서는 지난 5월 상병이 후임 2명에게 근무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상병이 후임 4명에게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폐품반납 예정인 부식용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중사가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워 구타하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는 등의 가혹행위와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군 수사기관은 10여 건을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준기자 mjkim@

토굴서 칩거 중인 손학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이 전남 강진 다산초당 인근 백련사 뒷산 토굴(흙으로 지은 집)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달 31일 재·보궐선거 패배를 뒤로하고 21년간의 정치인생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은 손 고문은 10여 일 전 부인과 함께 이 토굴로 내려와 칩거하며 정치 활동 등을 정리하는 저술 작업 중이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 법원 가기를"

김무성 "방탄국회 없어져야…유족들 세월호 합의문 수용해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받는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리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선택인데, 나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동료 보호를 위해 방탄국회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사자는 국회 회기 등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미뤄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관련,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데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벗어나는 합의는 여당으로서 하기에 참 어려운 문제"라며 "오늘 유가족 회의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한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건강 위협 '환경호르몬 아동복'

기자 수첩
박 지 원
<생활레저부 기자>

시중에 팔리고 있는 어린이 용품은 얼마나 안전할까. 최근 일부 아동복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올여름 출시된 7~8세 남아용 청바지 23개와 셔츠 22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2개 브랜드에서 환경호르몬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NPEO)가 검출됐다. 세척제에 주로 사용되는 NPEO는 위해성 우려 탓에 유럽에서는 2003년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더군다나 문제 아동복의 상당수는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아이들의 중추신경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 옷이 명품이라는 '가짜 이름표'를 달고 백화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결과가 발표되자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곧바로 회수했다. 하지만 "세탁하면 수치가 떨어진다" "앞으로 유해 물질을 정확히 공시하면 철저히 검열하겠다"는 등의 변명만 내놓을 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실 유해 물질이 아이들의 몸에 닿는다고 곧바로 병이 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의 몸 속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큰 화를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안전 기준 탓에 화학첨가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그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업체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보다 먼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자체 검열에 나서주길 바란다.

세월호법 수용 설득하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 씨와 면담을 하며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수용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혐의 의원 5명 오늘 영장심사

야당 자진출석 불투명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9시30분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부터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입법로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은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뉴스&뉴스

이주영 해수부 장관 해외 출장 나서

●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에 머물며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해외 출장길에 나선다.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1~24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총회와 24~2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제 5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에 참석한다.

25일부터 지방공기업 등 특별 감찰

●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연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난 6일 열린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처다.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박 대통령 비방'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소환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 보도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20일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루게릭병 알리기 얼음물 샤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자선 모금 운동인 'ALS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철도 비리' 송광호 의원 검찰 출석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와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20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송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당초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송 의원이 취재진을 피해 예정보다 1시간30분여 일찍 검찰청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55)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윤다혜기자 ydh@

"2곳 이상 장소서 음란행위"

CCTV 13개 확보…국과수 분석결과 이르면 오늘 나올 듯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모습을 확인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영상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맡은 고평기 여성청소년과장은 "사건 현장 등에서 13대의 CCTV를 확보했으며 이중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유의미한 CCTV는 모두 7개"라며 "시간대는 대략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 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께"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CCTV 가운데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여 전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고 과장은 "이 시간대에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동일인 1명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검장은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며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싱크홀 또 있나" 굴착공사현장 안전점검 최근 싱크홀과 공동 등이 잇달아 발견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사거리 인근 지하철 9호선 920공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터널 굴착 장비인 실드 TBM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장남 군단 검찰부로 이관

"폭행·추행 등 보강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과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전날 6사단 군사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중순부터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軍간부가 인터넷 도박

인터넷 도박에 빠진 위관장교와 부사관 등 2명이 적발돼 군의 초급간부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군 관계자는 20일 "최근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로 강원도 부대에서 근무중인 A 중위(25)와 B 중사(24)를 적발했다"며 "중사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중사는 2010년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3억여원을 털렸다. B 중사의 권유로 가입한 A 중위도 이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다가 2500여만 원을 날렸다.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B 중사는 A 중위에게 "도박사이트가 해킹당해 우리들의 아이디가 털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현역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A 중위는 4500여만원을 대출받아 건넸으나 B 중사는 이를 갚지 않았다.

B 중사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인한테도 18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안 A 중위는 B 중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이들의 도박 행보는 막을 내리게 됐다. /김민준기자

유대균·박수경 27일 재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인천지방법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 사건과 병합돼 같은 날 오전 10시 첫 재판이 열린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느긋한 대피 전국적으로 제395차 민방공 대피훈련이 열린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직원들 대부분이 방독면도 없이 느긋하게 걸으면서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처리 0건'… 마냥 노는 것 아니다

여의도 패트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민은 5월2일 법안 처리 이후 현재까지 법안 처리를 1건도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간다며 비판하고 있다.

19일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지만 결국 야당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치는 '싸움'이 본질이다. 당파적 입장에서 서로 싸우고 협의하고 토론하는 게 정치다. "싸우기만 하고 일을 안 한다"는 비난은 그럴 듯 해 보이나 실제론 맞지 않는 말이다. 정치인이야말로 '싸움꾼'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1건도 안 됐다는 말은 '본회의 의결'이 안 됐다는 의미일 뿐이다. 우리가 흔히 뉴스 화면으로 접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앉아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회의는 의정 활동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안 관련 여론 수렴, 발의, 상임위 절차 등을 거치게 되는 데 이 과정이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짧아도 수 개월 이상 걸린다. 본회의는 그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법안 설명과 의결 과정은 불과 몇 분 정도면 끝난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쟁이 심화됐다는 '빨간불'이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세월호법 문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 통과는 하룻밤새 수십 건이 가능하다. 국회를 출입하며 크게 바뀐 생각 중 하나가 국회 구성원들이 마냥 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현정기자 jhj@

인문예술융합 '아데니아' 론칭

중앙대는 인문예술융합아카데미 '아데니아'를 론칭하고 다음달부터 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아데니아는 지식·지혜·문화·예술 폴리스 등 4가지 커리큘럼을 통해 인문과 예술을 융합한 폭넓은 강좌를 진행한다.

아데니아는 론칭에 앞서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앙대 평동캠퍼스에서 '인문콘서트'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임운석 작가, 배순탁 작가, 전지영 교수의 특강이 진행된다.

무료직업교육생 모집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은 시민의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 강화를 위해 22일까지 무료직업교육생 403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주·야간과정으로 진행되며 피부체형관리, 주얼리디자인 등 총 10개 학과로 구성돼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홈페이지(www.jbedu.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02-361-5800)이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안전불감증 총체적 '人災'

고양터미널 공사중 소방시설도 차단…작업반장 등 9명 구속영장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총체적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책임자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에선 소방시설을 차단한 상황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여러 공사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해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용접작업 중 튄 불티가 가스에 옮아붙으면서 벌어진 단순 화재가 유독가스를 생성하는 가연 소재와 만나면서 사망자 8명, 부상자 116명 등 단시간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다.

한상구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20일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지하 1층 공사장 천정의 석고보를 제거하고 나서 전기용접기로 용접을 하다가 발생한 불티가 밸브에서 새어나온 가스와 만나 불이 붙었다"며 "발화점 상단 천정과 보에 시공돼 있던 보온용 마감재에 불이 옮아붙으면서 화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데는 소방시설 기능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복합수신기 기록상 5월 26일 오전 9시 17초에 최초 불이 났다. 유독 가스가 위층으로 퍼지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56초 뒤인 9시 1분 3초에 지상 1층, 다시 12초 뒤인 오전 9시 1분 14초에 지상 2층과 3층에 화재가 감지됐다.

관리사무소 방재관리자가 공사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과 건물 전체 소방시설 자동연동기능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1분 7초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화재 대피방송과 비상벨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불이 났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다.

일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화재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 관계자인 작업반장 조모(54)씨 등 3명과 공사발주사인 씨제이푸드빌 설비담당자 박모(43)씨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김모(51)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화려한 쌀개방 반대 집회 2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여성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쌀개방반대 문구가 적힌 빨간 부채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삼호드림호 납치 소말리아 해적 두목 체포

한국 유조선 삼호드림호를 납치해 900만 달러(약 91억8000만원)의 몸값을 뜯어낸 소말리아 해적 두목이 붙잡혔다.

소말리아 치안 당국 소식통은 소말리아 해적 두목 모하메드 가르판지를 체포했다고 19일 (현지시간) 밝혔다. 가르판지는 소말리아 해적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해적단을 이끄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7일 모가디슈에서 중무장한 경호원들과 함께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판지는 2010년 유조선 삼호드림호를 납치한 뒤 217일 동안 억류했다가 900만 달러를 받고 풀어줘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다.

한때 극성을 부렸던 소말리아 해적은 미국 등 각국 군함이 아덴만을 비롯한 인도양 일대에서 초계 활동과 상선 보호 작전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수그러졌다. /김민준기자

"무등산수박 정말 크네요" 20일 부산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어린이들이 일반 수박보다 2~3배 크고 무게도 20㎏이 넘는 무등산 수박을 안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 속이려 가짜 동계훈련까지…

체육특기 대입 사기단…전 감독에 교수도 가담

고등학교 축구부원을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과 대학교수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경북 소재 모 대학교 전 축구부 감독 현모(51)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천 모 중고교 축구감독 출신 하모(6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서울 모 대학교 명예교수 소모(60)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브로커 이모(41·전 실업팀 축구선수)씨 등을 통해 소개받은 고교 축구부원 학부모 26명에게 아들을 서울 소재 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며 접근, 1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이씨 등과 짜고 자신이 해당 대학교 축구부 감독 내정자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동계훈련을 하거나, 해당 대학교 로고가 적힌 대형 버스를 구입해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기도 했다.

하씨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학위 취득을 돕는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해 특정 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할 것처럼 속여 브로커 이씨에게서 소개받은 수험생 학부모 55명으로부터 8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다혜기자 ydh@

가정폭력 해마다 증가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정 폭력 발생 건수는 총 999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가정 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이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이다. 7월까지의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가정 폭력 건수는 1만7141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 유형별로 보면 아내를 대상으로 한 학대 건수가 3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이어 남편 학대, 노인 학대, 자녀 학대 등의 순이었다. /조현정기자 jhj@

'장수하늘소' 8년만에 발견 멸종된 줄 알았던 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를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에서 발견했다. 이번에 관찰된 장수하늘소는 수컷으로 지난 2006년 암컷 한 마리를 발견한 후 8년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

환경부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자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쳤을 때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1차 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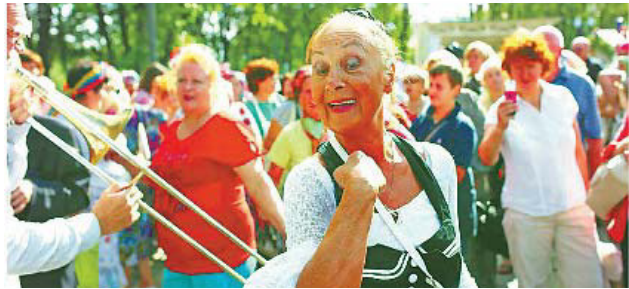
대마 빠진 원어민 교사 환각 상태로 영어 강의

대마초를 밀반입해 유통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원어민 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 총책 신모(4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캐나다인 K(44)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 등은 2월부터 2개월에 걸쳐 미국에서 대마 2㎏(2억원 상당)을 들여와 1g에 10만원에 3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를 구입한 이들은 경기도 수원 소재 사립대 영어 교수 3명, 수도권의 영어학원 강사 22명 등 주로 원어민 영어 교사들이었다. 이중 어린이집 영어강사인 나이지리아인 J(32·구속)씨는 수업 직전 대마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Бабушки вышли гулять с оркестром

할머니 손맛 담긴 딸기잼

metro Russia

모스크바 축제 눈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노보푸쉬킨 공원에서 잼을 만드는 할머니들이 한 자리에 모인 '모스크바 잼 축제'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모스크바 시정부는 3000만 루블(약 8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축제를 열었다. 공원에는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다양한 잼이 전시됐고 판매도 이뤄졌다.

모스크바 통상·서비스국의 알렉세이 네메류크 국장은 "모스크바 지역의 우수한 전통 잼을 널리 알리고 수제 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축제를 개최했다"며 "시내 레스토랑 관계자도 축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네메류크 국장은 "잼 시식 및 판매 행사 이외에 초대형 파이 만들기, 할머니를 위한 트위터, 미로 숲 등의 행사도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할머니와 손자·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로 숲이 인기가 많다"며 "400m 길이의 숲을 만들기 위해 유럽에서 나무 3500여 그루를 특별히 공수했다"고 덧붙였다.

축제에 참가한 '따찌야나'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잼 만드는 비법도 공유하고 트위터 사용법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이곳에 와서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인기 댄스도 배웠다"며 "오늘 배운 댄스 동영상을 당장 트위터에 올려야겠다"고 했다.

잼 축제는 참가자들이 시내 붉은광장까지 퍼레이드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빅토리아' 할머니는 "요즘 세상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흥겨운 음악에 맞춰 걷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며 "다만 잘생긴 할아버지가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않아 아쉽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율리야 두드키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사우디 왕자 괴한 습격 받아

metro France

현금 3억·기밀문서 도둑

Impressionnant braquage d'un pr[...] saoudien au nord de Paris

FAITS DIVERS - Le convoi officiel d'un prince saoudien a été attaqué à l'an[...] dimanche soir, par plusieurs malfaiteurs, au nord de Paris. Les braqueurs, [...] 250 000 euros ainsi que des "documents officiels", sont en fuite.

Les auteurs du braquage n'ont pas été retrouvés.

파리 북쪽 지역에서 사우디 왕자가 공항으로 가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지난 17일 밤 9시경 샹젤리제에 위치한 호텔에서 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중이던 사우디 왕자가 18구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당시 괴한은 두 대의 BMW를 나눠탔고 5명에서 8명으로 추정된다. 자동소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사우디 왕자의 차를 가로막고 차에 탄뒤 25만 유로(약 3억4000만원)를 빼앗고 중요 서류를 훔쳐갔다.

경찰 출동후 괴한이 타고 도주했던 차량이 발견됐지만 두 대 모두 불에 타있는 상태였다. 해당 차량 근처에선 사우디 왕자가 탈 예정이었던 500 유로(약 67만원) 상당의 비행기 티켓 두 장, 아랍어로된 문서와 의약품이 버려진채 발견됐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무장강도 사건이라고 보기엔 특이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많은 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드물다. 만약 이들이 노린게 기밀문서였다면 단순 강도 사건보다 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는 파리 경찰청이 맡고 있으며 아직까지 문서 정황과 용의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세리즈 수드리 르 뒤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남아共 인종차별 정책>

"퍼거슨 사태 아파르트헤이트"

유엔인권 최고수장 언급…美 10대 흑인 총격사망 소요 격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0대 흑인 청년의 총격 사망 사건으로 빚어진 소요 사태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주정부가 주방위군까지 투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위대와 경찰은 주방위군이 투입된 첫날인 18일(현지시간)에도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78명이 체포됐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퍼거슨시 경찰 관계자는 "시위자 2명과 경찰관 4명이 다쳤다"면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이 평화 시위를 이유없이 막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시위대는 철저한 진상 공개와 함께 마이클 브라운에게 총을 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을 기소하지 않으면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브라운 총격 사망 사건 현장에 19일(현지시간) '손들어 쏘지마' 문구의 팻말과 그를 추모하는 꽃송이가 놓여 있다. /AP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흑백 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다. 실제로 젊은 흑인 청년들의 시위에 맞서 백인 경찰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집회도 있었다. 지난 17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도심에서 페이스북 동호인 100여 명은 윌슨 경관을 지지하는 시위를 했다.

이런 가운데 미주리주 대배심은 20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대배심은 경찰 진술과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윌슨 경관이 법을 위반했는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편 유엔 인권 분야 최고수장이 이번 소요 사태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와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퍼거슨시의 인종차별이 낳은 충돌과 폭력은 남아공 출신인 내겐 익숙한 광경"이라며 "아파르트헤이트는 미국 곳곳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규탄한다"며 "시위할 권리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에볼라 위기' 야간통금·빈민가 봉쇄

라이베리아 정부 바이러스 확산 방지 안간힘

라이베리아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일부 지역을 봉쇄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전했다.

엘렌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야간 통금령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며 에볼라 환자 격리 센터가 위치한 웨스트포인트 일대 출입도 차단한다"고 밝혔다.

빈민가에 위치한 격리 센터는 얼마전 괴한의 습격을 받은 곳이다. 에볼라 환자 17명은 이 곳을 탈출했다가 복귀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혈액과 체액이 묻은 침구류가 유출돼 에볼라 확산 공포를 키웠다.

최근 라이베리아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 14~16일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감염으로 숨진 환자는 53명이다. 시에라리온(17명)과 기니(14명) 보다 3배 이상 많다. 총 사망자도 466명으로 에볼라가 처음 발생한 기니(394명)의 사망자 수를 넘었다.

라이베리아에서 7일(현지시간) 군인들이 수도 몬로비아 외곽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라이베리아는 에볼라가 발생한 국가 중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건·위생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에볼라 환자가 대거 발생한 북부 로파 지역에 소독제와 방호복 등이 거의 떨어졌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9일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의 총 감염자는 의심환자를 포함해 2240명이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2072.78 (+1.64)

 코스닥 561.96 (−0.70)

 금리(국고채 3년) 2.58 (+0.01)

  환율(원·달러) 1021.50 (+4.00)

구조조정하면서 신규 채용은 확대?

issue&view
금융권 채용확대 왜?

정부 채용 독려 때문… 고용동향 모니터링 강화 필요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과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확대 주문에 바늘구멍이던 금융권 채용 등용문이 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과 신한, 부산, 경남,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는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을 확대 모집하고 나섰다.

그간 저금리·저수익 기조로 신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던 모습에서 180도 돌변한 셈이다.

이는 앞서 박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금융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경제팀에서 챙겼으면 한다"고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와 저금리에 따른 수익 감소로 금융권에 부는 한파는 여전하다.

◆구조조정으로 5만개 일자리 없애

실제 지난 1년간 증권사와 보험사, 은행권 등 금융권 전반에서는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보험업 취업자는 8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9000명(5.4%)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50만명 넘게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융권 취업자 감소는 증권·보험·은행권 등 금융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업은 동양증권에서만 500명 이상이 회사를 나왔고 삼성증권에서도 300명 안팎이 희망퇴직 형태로 회사를 떠났다. 보험업에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진행돼 삼성생명에서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1000여명을 줄였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과 SC은행이 대규모 구조조정과 점포 통폐합을 단행했다. 특히 씨티은행은 190개 지점 가운데 30%인 56개의 지점을 없앴고, SC은행도 지난 2월 200여명의 직원들을 구조조정했다.

◆고용안정 속 경영혁신이 필요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성장과 저금리, 저수익 등 3저 시대에 '인재'를 바탕으로 한 '고용안정 속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은행·증권·보험업을 불문하고 모두 3低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며 "단기적인 비용조정을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지속적인 금융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숙련된 금융 인력에 대한 투자와 안정된 근로 여건의 보장, 그리고 지점과 영업점을 유지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도 "경기가 어려울 때 금융회사가 지점을 축소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대하는 CEO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상반기 은행권의 실적이 전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하반기 채용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도 존재한다"며 "인재 채용과 함께 규제 완화 등 금융권 전반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장은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업의 구조조정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정부는 금융과 보험업의 고용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직프로그램 운영,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 조정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벌써 긴팔이 2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아동 모델들이 캐주얼 카디건 등 긴 소매 옷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선보이는 캐주얼 카디건을 전국 60개 점포에서 중저가 브랜드상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1만9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인크루트, 27일 채용설명회

CJ, 포스코, IBK기업은행 등의 입사전략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7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제12회 2014년 인크루트 채용설명회'를 연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대학생이 선정한 일하고 싶은 1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기업별 입사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구직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것을 인사담당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인크루트 홈페이지 공지사항(festival.incruit.com/2014)에서 사전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공정위, '갑의 횡포' 락앤락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주방 생활용품 업체인 락앤락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KB금융 징계 언제?

임직원 인사도 지연

금융당국이 KB금융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아직 제재 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부 소명이 남아있지만, 이번 제재로 인한 금융권의 피로도가 너무 깊다"면서 "이번주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측에 이달 중 KB에 대한 제재를 종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6월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소명 요청과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두달 가량 결론을 못내려 임직원 인사가 지연되고, 하반기 경영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2011년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분사하면서 KB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조항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지연되는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두 달간 회의를 다섯 차례나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업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대기업, 추석 앞두고 내수경기 불지피기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협력사 물품대금 앞당겨

대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삼성은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할 계획이다. 회사별로 추석 연휴기간 출근하는 일부 임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에 지급된다.

또 8월18일부터 9월19일까지 전국 37개 사업장에서 135개 자매마을과 협력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 광장에서는 26, 27일 양일간 21개 자매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한우·과일·쌀 등 50여 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27일에는 삼성 사장단회의가 끝난 후 관계사 사장들이 서초사옥 직거래 장터를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자매마을의 장터에서 '일일 점장'으로 직접 판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삼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회사 물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 추석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삼성중공업 등 18개 회사가 참여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협력사 납품대금 1조15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대금을 선지급받는 협력사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9개 회사에 부품·원자재·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2000여개 업체다.

현대차그룹은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18개 계열사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결연시설을 방문해 명절음식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LG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 직원들에게 지급해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차례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력사의 자금사정을 돕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연금복권520 제16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6조	8 6 3 2 2 2
		7조	2 2 1 6 4 7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2 7 9 0 3 1
4등	100만원	각조	6 3 5 4 4
5등	2만원	각조	0 0 5
6등	2000원	각조	17, 44
7등	1000원	각조	5, 8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될 것도 안 되는!
네 남자의
사나운 로맨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9 19 29 39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8월 29일 첫방송
김영광 | 경수진 | 오정세 | 유다인 | 육성재 | 박초롱 | 최로운 | 이채미 | 김현준 | 민하 | 연출 유학찬 윤혜령 | 극본 박유미

사실상 자동차 보험료 편법 인상?

30년만에 개편 논란… 사고 잦으면 '요금 폭탄'

금융당국이 1989년에 도입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꾼다고 20일 발표하면서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건수제 도입이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많이 거두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무사고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50만원 이하 소액사고의 할증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므로 편법 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될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에 줄곧 자동차보험료 개선 필요성을 요구해왔다.

손해보험업계는 경상사고와 가벼운 물적 사고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수가 부과돼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건의를 당국에 줄곧 해왔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사고 후 안전운전에 노력했더라도 3년간 무사고 기록을 갖고 있어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불만을 느껴왔다.

게다가 최근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보다 물적사고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점도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라 사고를 빈발하게 발생시킨 사고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0%에 달하는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인하되면서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국과 업계는 이번 제도 변경이 경미한 물적사고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어져 사고예방과 손해율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좀 늦춰진 점이 아쉽지만, 이번 당국의 제도 개선은 업계가 그동안 공감하고 깊이 고민한 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3등급 할증은 한 등급당 평균 7%씩 보험료가 21% 인상되는 것"이라며 "자동차 물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판을 바꿔 보험료를 올리려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제도로 할증이 무서워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처리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감원에서는 사고 건수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1회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 기준도 마련했으므로 보험가입자의 자비처리 부담이 현행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일연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도록 했는데 이는 사고위험에 따른 할증 수준을 적절하게 정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은 소액 물적사고가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비처리 우려가 현재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車보험료 할증기준 '사고 건수'로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부담을 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1989년 도입된 이래 25년 만이다.

사고 크기에 따른 보험료 산정보다 사고 건수에 의거한 것이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와 공청회 논의 등이 반영됐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된다.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되며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그러나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물적사고 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1건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고 2번째 사고부터 할증된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1회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만원 밑이면 1등급, 50만원을 넘으면 2등급이 할증된다.

사고가 2번을 초과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을 할증한다.

현행 복합사고의 경우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 할증하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1건으로 평가해 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할증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이면 1등급이 할인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년간만 무사고이면 1등급 할인된다.

금감원은 2016~17년에 걸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새로워진 에너지 부스트 러닝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아디다스 명동 브랜드 컨셉 스토어에서 열린 '에너지 부스트' 러닝화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 부스트 러닝화는 달릴 때 충격을 에너지로 전환해 편안한 러닝을 즐길 수 있다. /연합뉴스

그랜드 하얏트 인천 사전 개관식 20일 인천 중구 운서동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타워에서 열린 호텔 사전 개관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모르게 경매처분 사라진다"

동산담보대출 제도 개선안 9월 시행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 개선에 나섰다. 담보처분이 곤란하거나 은행이 경매사실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은행권이 기업의 동산담보대출을 꺼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동산담보권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은행이 담보권이 있는데도 제도 운영상의 미흡으로 은행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담보물건이 제3채권자의 경매 집행으로 처분돼 은행의 담보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동산담보물 경매집행시 대법원에서 집행관이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 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해 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 동산담보설정 표준계약서상 채권은행이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할 수 있는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바뀐다. 현행에서는 이 부분이 불명확해 채무자가 은행과 제3자간 공모에 의한 저가매각 의혹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면 임의처분 절차가 중단돼 담보처분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경매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 매각금액 이상으로 처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재고자산 담보물건의 담보효력도 강화된다.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담보물로 잡혔다가도 제조공정에 투입되면 더 이상 담보물이 아니게 되는 논란이 생기는 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다.

민병진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부도가 발생해도 채권보전 수단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금융권의 대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수도권 담보대출, 지방은 전세끼고

주택 마련 노하우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과 제1금융권에서의 LTV 비율이 70%로 동일해졌지만 주택을 마련할 때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지방은 전세를 끼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만1447만원, 전세가는 2억263만원이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1억1184만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반면 LTV 최대 70%를 적용 받을 경우 9434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는 게 전세를 끼고 사는 것보다 자기 자본 부담이 덜한 것이다.

수도권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실투자액이 적게 들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4621만원으로 전세가 3억4239만원과는 2억382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최대 대출액은 3억8235만원으로 1억6386만원의 자금만 추가하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당장 계약에 소요되는 금액 3996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음으로 인천이 매매가 2억4575만원, 전세가 1억3534만원, 대출 가능금액 1억7203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매매가 3억1025만원, 전세가 2억103만원, 대출 가능금액 2억1718만원으로 파악됐다. 두 지역 모두 대출을 이용하는 게 3669만원, 1615만원 덜 소요된다.

이에 반해 대구(1196만원), 광주(1164만원), 전북(514만원), 경북(438만원), 전남(187만원), 울산(33만원) 등 지방에서는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70%를 크게 상회하면서 집값의 30%에 못 미치는 자기 자본만으로도 주택 마련이 가능했다.

장용훈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100% 자금 자본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나 대출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이용했을 때 실투자금이 덜 드는 지 먼저 계산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출의 경우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전세를 끼고 매입할 경우 당장의 이자 부담은 없지만 공실 부담 및 향후 전세보증금 변제를 걱정해야 하는 등의 각각의 리스크가 있다"며 " 개인의 재무여건과 함께 매입물건의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매입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파블로 로쏘 사장(가운데)이 올 뉴 체로키 앞에서 모델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500대 이상 팔겠다"

크라이슬러, 올 뉴 체로키 공개

크라이슬러 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가 중형 SUV '올 뉴 체로키(All-New Cherokee)'를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선보였다. 올 뉴 체로키는 1974년 처음 등장해 2002년 지프 리버티로 대체되기 전까지 250만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체로키의 풀 체인지 모델. 한국 시장에는 7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올 뉴 체로키는 폭포를 연상하는 후드와 7-슬롯 그릴로 지프 고유의 DNA를 유지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주는 LED 주간주행등(DRL) 등 차세대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실내 디자인은 모로코, 이탈리아의 베수비어스산, 그랜드 캐니언 등 세계적인 자연 명소를 모티브로 했다. 나파 가죽 시트를 비롯해 프리미엄 소재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게 하고, 스티치로 액센트를 주어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올 뉴 체로키는 새로운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I(Jeep Active Drive I) AWD 또는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II 4WD 시스템과 지프 셀렉-터레인(Jeep Selec-Terrain) 지형설정 시스템을 갖췄다.

론지튜드(2.0 디젤 및 2.4 가솔린) 모델에 적용된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I AWD 시스템은 미끄러운 도로나 다이내믹한 주행 등에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리미티드 모델에 적용된 지프 액티브 드라이브 II 4WD 시스템에는 2.92:1의 감속비를 제공하는 로우 레인지 기능과 토크 제어 기능이 추가되어 강력한 등판능력과 오프로드 성능을 제공한다.

올 뉴 체로키는 업계 최초로 주행 여건이나 운전 스타일에 따라 앞바퀴 굴림 또는 4륜구동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뒤차축 분리 시스템을 적용해 연료 효율성도 높였다. 지프 셀렉-터레인 지형설정시스템은 오토, 스노, 스포츠, 샌드/머드 중 선택된 모드에 따라 구동계통의 컨트롤 모듈 등 최대 12개 항목의 시스템 설정이 최적화된다.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파블로 로쏘 사장은 "올 뉴 체로키는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8만여 대가 판매됐다"며 "어떤 도로, 어떤 날씨에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 달에 100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 500대 이상 판매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ferrari5@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21일부터 목포 하당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30대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 0.002%

부장급도 0.1% 그쳐

여성이 30대 공기업에 입사해 임원에 오를 확률은 0.002%로 10만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여성 직원은 사원급과 과장급이 대부분이었고, 부장급은 0.1%에 그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홀대가 심했다.

20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정부 지정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남여 임직원 직급별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직원 수는 9만7748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1만1614명(11.9%)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여성 비율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3월말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직원은 62만4909명이고, 여성은 20.9%인 13만912명이다.

공기업 여성 직원은 사원급이 6392명, 과장급 5148명으로 하위직급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장급은 전체 직원의 0.1%에 불과한 72명이었고, 여성 임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 상임감사위원 등 단 2명(0.002%)에 불과했다. 10대 그룹 여직원의 임원 승진 확률(0.07%)과 비교할 때 35배나 낮은 수치다.

전체 임직원 중 사원급과 부장급 여성 직원 비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였다. 사원급 여직원은 82명으로 전체의 35.5%나 됐지만, 부장급은 여성이 단 한명도 없었다. 2위는 한국감정원으로 사원급 여성 비율이 22.5%(158명), 부장급은 0.1%(1명)로 22.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19%(76명)에서 0.5%(2명), 한국관광공사가 17.4%(109명)에서 1.3%(8명)로 각각 18.5%포인트, 16.1%포인트 낮아지며 3~4위에 랭크됐다.

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6.4%→0.7%), 부산항만공사(15.4%→1.2%), 한국토지주택공사(14.2%→0.1%), 인천항만공사(14.1%→0.6%), 울산항만공사(12.8%→0%), 한국석유공사(12.2%→0.1%) 순으로 '톱 10'을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은 부장급 여성이 모두 '0명'이었다. 사원급에서조차 여성 비율은 2%대에 그쳤다. 한국전력은 사원급 여성이 1677명(8.6%)으로 자회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부장급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2명밖에 없었다. /김태균기자 ksgit@

LG유플 추가영업정지 7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 14일과 과징금 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 행정심판 결정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액은 76억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를 들어 각각 7일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가장 긴 추가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LG유플러스는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방통위 측은 "청구인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SK텔레콤·LG유플러스) 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적어도 타사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기에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지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자연·교육·교통 3박자 '홍제 금호어울림'

서대문 지역 7년 만에 새아파트… 2016년 입주

파격적인 '4無옵션'… 주방 팬트리 등 무료 제공

입주한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95%를 차지하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7년 만에 새 아파트가 선보인다.

금호산업건설사업부는 홍제동 무궁화단지를 재건축한 '홍제 금호어울림'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13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96가구 규모의 중형급 단지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4㎡ 9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같은 84㎡라도 A~E까지 5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홍제동 일대는 안산,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등이 인접해 서울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홍제 금호어울림'은 단지 바로 앞으로 안산 7㎞ 둘레길이 조성돼 조망권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우수해 도보 3분 거리에 현대홍익유치원, 고은초, 신연중이 있으며, 반경 2㎞ 이내 한성과학고, 서울외국인학교, 정원여중, 홍은중 등이 위치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걸어서 8분 거리인 역세권 단지로, 종로·광화문·신촌·여의도 등 주요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내부순환로와 통일로도 가까워 차량을 통한 강북권과 강남권 이동도 쉬운 편이다.

홍제 금호어울림 투시도.

단지 바로 앞으로 서대문도서관이 위치해 있으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자연사 박물관, 그랜드 힐튼 컨벤션센터 등의 문화시설이 도보 거리다. 2㎞ 이내 거리에 홍제·인왕시장, 서울적십자병원, 주민센터, 서대문구청이 있다.

'홍제 금호어울림'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로 관리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다.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태양광 발전설비, 디지털 멀티온조절시스템(실별 온도조절기), 일괄소등·가스차단 스위치, 원격검침시스템, LED센서 등의 설계가 적용된다.

현재 파격적인 '4無옵션'을 내걸고 분양 중이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이고, 주방 팬트리, 전기 오븐렌지, 전동 빨래 건조대 등의 각종 옵션사항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3.3㎡당 129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문정권 분양소장은 "7년간 분양물량이 없었던 홍제동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를 전체 일반분양 물량으로 구성했다"며 "일대 노후화된 단지가 95% 이상이라 새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에게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주택홍보관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17-5번지 백련빌딩 2층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이다. 문의 02) 395-4600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축소

국토부, 재건축 요건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사업 활성화·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공개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면서 연초부터 전방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작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는 시세보다 높게 공급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옛 보금자리주택내 공공주택 전매제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옛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고양 원흥·인천 구월지구의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데도 계약 후 4년간 전매를 할 수 없고 1년간 거주의무가 있어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이달 말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최대 8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지의 공공주택 당첨자들도 전매기관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돼 크게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한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확정, 발표한다.

국토부는 또 당초 10월에 발표하기로 한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방식 개편방안도 이달 말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김두탁기자 kimdt@

'아크로텔 강남역' 4000만원대로 장만

역세권 투자상품으로 주목

강남역에 위치한 '아크로텔 강남역' 오피스텔이 강남역세권 수익형 투자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임대수요가 꾸준한 서울 중심에 위치, 공실 위험은 적으면서도 투자 부담은 낮다는 장점이 눈길을 끈다.

오피스텔로는 드물게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며, 'e편한세상' 브랜드로 유명한 대림산업과 삼호가 시공을 맡았다. 애초 1988년 준공된 179실 규모의 현대골든텔이 있던 곳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개별 대지지분이 적어 재건축이 힘든 것이 보통이나 '아크로텔 강남역'은 입지여건이 뛰어나 투자자들의 의견이 빠르게 모아지면서 재건축이 추진됐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강남역 일대는 삼성타운에 이어 신분당선 강남역 개통으로 분당·판교 인구까지 유입되면서 하루 평균 100만명이 오가는 곳이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삼성타운의 2배 규모로 개발되는 롯데타운, 인근 5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계획 등으로 여전히 수익형부동산 투자처로 선호되고 있다.

아크로텔 강남역 투시도.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중심 입지에 있지만 분양가는 기존 역세권 오피스텔보다 최대 5000만원까지 저렴한 1억원대부터 책정됐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을 내면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해 준공 시까지 추가 자금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LTV 완화와 대한주택보증의 오피스텔 보장제 실시로 실투자금 4000만원대로 마련할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 1인 가구를 배려한 에어컨·냉장고·세탁기·쿡탑 등의 고급 빌트인 시스템이 시공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 계절창고가 배치된다. 또 강남의 뷰를 감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하늘정원과 게스트룸(공용) 등의 입주민 커뮤니티시설이 제공된다. 470실 대규모에 최신 난방시스템과 로이복층유리 등이 적용,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역세권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이 4%대임에도 투자자들이 꾸준히 몰리는 데는 공실 걱정 없는 두터운 수요층과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며 "아크로텔 강남역을 통해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581-5034

/박선옥기자

"빌 게이츠·캐머런 디아즈 거실에도 깔렸죠"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크리스토퍼 샤프(오른쪽)와 아내 수전.

폴 스미스가 디자인한 '카니발 양탄자'. /BBC

영국 양탄자 회사 부부 대표, 유명 패션 디자이너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성공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취미로 양탄자를 수집하던 부부가 세계 최고의 양탄자 기업을 일궈낸 비결은 뭘까. 최근 영국 BBC 방송은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에게 '마법의 양탄자'를 판매하고 있는 이들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크리스토퍼 샤프는 아내 수전과 함께 1997년 수제 양탄자 판매 업체 '러그 컴퍼니'를 세웠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할리우드 스타 캐머런 디아즈와 제시카 파커 등이 회사의 고객이다. 캐머런 총리는 벽에 거는 장식품을 특별 주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1년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선물하기도 했다.

유명 고객 덕분에 회사 매출도 껑충 뛰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5년 간은 적자를 면치 못했지만 지난해 매출은 2240만 파운드(약 381억)에 달했다. 현재 러그 컴퍼니는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주요 백화점에 22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가로 2.7m 세로 1.8m 길이 양탄자의 평균 가격은 2000~7000파운드(약 340만~1200만 원)다.

샤프 대표는 회사의 성공 비결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꼽았다. 그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이 디자인한 개성만점 양탄자를 선보였다. 전통 문양이 대세인 양탄자 시장에서는 가히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샤프 대표는 "그동안 영국에서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한 양탄자 디자인은 없었다"며 "디자이너의 개성이 묻어나는 세련된 양탄자를 내놓자 콧대 높은 고객들의 주문이 몰려들었다"고 밝혔다.

샤프 대표는 취미로 양탄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사우디에서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다 일을 그만 둔 뒤 종종 시장을 찾아 양탄자를 수집한 것이 계기였다. 그는 한동안 아내의 고향인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지내면서 양탄자를 팔기도 했다. 이후 자녀 교육을 위해 런던으로 온 부부는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양탄자를 판매하기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양탄자 판매 업체들은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다. 정찰제로 양질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한 부부는 런던 첼시에 첫 번째 가게를 열었다.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진 않았다. 가게를 찾은 사람들은 작은 규모의 허름한 가게 모습과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본 듯한 양탄자 디자인에 실망하기 일쑤였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샤프 대표는 창업한 지 1년 만에 새로운 양탄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결국 러그 컴퍼니는 소규모 양탄자 상점에서 제조·판매 기업으로 거듭났다. 러그 컴퍼니는 네팔에서 2000명의 직원을 고용해 수제 양탄자를 제작하고 있다. 양탄자 한 개를 만드는데 스무 명이 매달리면 4개월 뒤 완성된다.

샤프 대표는 "명품 양탄자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며 "가격은 대량 생산 제품보다 비싸지만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헝거 게임?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 23회 국제 사냥·낚시·아웃도어용품 박람회에서 여성들이 활시위를 겨누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중국, 日 기업 12곳에 2000억 '벌금폭탄'

반독점 위반혐의 처벌… 금지법 시행 후 최대 규모

중국이 20일 반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기업 12곳에 총 12억 3500만 위안(약 2000억원)의 '벌금폭탄'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오전 스미토모 등 일본 부품 업체 8곳이 가격독점 행위를 했다면서 총 8억 319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또한 니혼세이코 등 4개의 일본 베어링 업체의 가격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4억34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발개위는 "일본 기업의 자동차 부품·베이링 가격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번 벌금 부과액은 중국의 반독점금지법이 탄생한 이래 최대 규모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외국계 분유 업체에 1000억 여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크라이슬러, 아우디 등 다른 외국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독점행위 혐의로 벌금을 매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스왑션·총수익스왑 아시나요?

월가 복잡한 신종 파생상품 급증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등 신종 파생상품의 부실화로 발생했던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최근들어 '스왑션(swaption)'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등 더 복잡해진 파생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저금리 추세와 낮은 변동성 속에 신용파생상품이 재유행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들 신종파생상품이 이미 많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바콜리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의 재닛 타바콜리 대표는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개혁을 강조했던 월가가 실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차입하고 파생상품 투자에 더 집중해 위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우려를 낳고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스왑션이다. 스왑션은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바꾸는 스와프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합친 복합 상품이다. 금리 상승 부담을 피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기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한번 행사한 스왑션을 원상태로 바꾸려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2005년 월 평균 20억 달러에 불과하던 스왑션 거래는 최근 2400억 달러(약 245조원)로 급증했다.

TRS에 대한 우려도 크다. TRS는 해당 기준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맞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들은 특정 자산을 직접 사지 않고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악화할 경우 투자자들은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

TRS 거래는 올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같은 신종파생상품이 대규모 자산운용사, 금융기관, 헤지펀드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있다"며 "상품에 대한 신뢰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새로운 금융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국명기자 kmlee@

20만원대 '저가 노트북' 쏟아진다

레노버 에이서 HP 등 출시 경쟁 듀얼코어CPU·프리OS로 인하

몇 년 전만해도 괜찮은 노트북을 사려면 100만원이 넘게 들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격 부담이 2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저가 노트북이 제 세상을 만나면서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운영체제(OS)를 탑재할 수 있도록 아예 OS를 장착하지 않으며 주요 소프트웨어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쓸 수 있어 노트북에서 빼버리는 것이다.

원가 비중이 큰 가볍고 작은 부품, 뛰어난 화질의 디스플레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레노버는 29만원짜리 노트북 '에센셜 G505'를 판매 중이다.

화면 크기는 15.6인치이며 해상도는 1366 x 768 픽셀로 평균치를 살짝 밑돈다.

하지만 메인 메모리 용량이 2GB이고 하드디스크 저장공간도 320GB로 준수하다. DVD레코더 광학드라이브도 갖췄다.

다만 무게가 2.6Kg으로 무겁고 운영체제가 없다.

HP의 '15-G014AU'도 레노버 제품과 비교할 때 스펙과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

저가 노트북의 기본 스펙인 '듀얼코어 CPU·프리 OS'를 탈피한 제품도 있다.

에이서의 '아스파이어 E5-511'인데 이 제품은 인텔 쿼드코어 CPU를 장착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8.1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무게는 2.5kg으로 다소 무겁지만 가격은 39만9000원이다.

해외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HP는 MS와 공동으로 윈도 8.1을 탑재한 저가 노트북 '스트림 14'를 20만원에 출시하기로 했다.

스펙도 나쁘지 않다. 1366×768 화소의 14인치 화면, 저전력 AMD 프로세서, 2GB 램, 블루투스, 와이파이, USB 포트, HDMI 아웃, SDXC 카드 슬롯 등 어지간한 건 다 집어넣었다.

저장용량이 적은 게 옥에 티다. 32GB와 64GB 두 가지며 가격은 각각 20만원과 25만원이다.

구글이 팔고 있는 크롬북은 150달러(약 16만원) 제품도 있다. 이 제품 역시 웹 브라우저 크롬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노트북의 성능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 됐다. 하지만 무게와 크기를 줄이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휴대가 어렵다"며 "차를 소유한 유저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데스크톱을 노트북으로 바꾸려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레노버 에이서 아스파이어 V3-331

삼성은 왜 우주선 안 쏠까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1957년 10월4일. 옛 소련은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해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했다.

냉전시대이던 당시 소련과 양강을 이루던 미국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이 생겼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은 또 한번 세계인을 경악케 한다. 우주선에 사람을 실어 발사한 것이다.

우주선 보스토크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인 유리 가가린이 탑승한 것이다. 가가린은 우주선을 타고 100분간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는 푸른빛"이라며 감탄했다.

2008년 10월28일. 미국의 민간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 X는 3년간 세차례 실패를 딛고 마침내 첫번째 상업용 로켓 '팰컨 1호' 발사에 성공한다.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성공은 우주 개척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 전까지 우주선이나 위성 발사는 100% 국가가 주도하는 일종의 국영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e메일 결제 시스템 '페이팔', 프리미엄 전기차 '테슬라'를 창업한 엘런 머크스가 세운 민간 기업이다. 즉 국가가 아닌 개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이다.

머스크의 목적은 다름아닌 '인류의 화성 이주'다. 허황된 소리로 들리지만 머스크는 진지하다.

"앞으로 20년 뒤 지구촌 인구는 80억명으로 늘어난다. 석유, 가스, 물 등 주요 자원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인류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곳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화성이다."

머스크는 지난 6월 일종의 우주 버스인 '드래곤2'를 공개했다. 10명 내외의 사람이 타면 바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유인 우주선이다.

머스크는 우주선 발사에 드는 비용을 기존의 10%로 낮추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우주선 발사에 가장 많은 돈이 드는 게 1단 발사체인데 이를 재활용하는 전략이다.

즉 1단 발사체가 다시 발사대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미 일부 과정에서 성공을 맛보고 있다. 그의 목표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2018년 다수의 사람이 화성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건'이 현실이 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 나로호를 쏜 것에 만족하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삼성, 현대차, LG, SK와 같은 국내 대기업도 우주 개발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

스마트폰, 자동차, 에어콘, 석유 정제만 하던 기업이 어떻게 우주선을 만드냐고? 물리학을 전공한 머스크는 우주항공학 등 우주선 제작과 발사에 필요한 지식을 독학으로 습득했다.

박물관 유물이 눈앞에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SK텔레콤 이동형 ICT 체험관 '티움(T.um) 모바일' 개관식에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이버 박물관을 체험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3일까지 진행되는 '티움 모바일'은 하루 약 500~1000명이 현장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SK텔레콤 제공

인화할까…클라우드에 저장할까…

휴가 사진 정리도 스마트하게

"이 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정리하지."

즐거운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가면서 이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대한 사진 량에 지레 겁먹고 정리를 미루다 가족·연인·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 스마트한 사진 정리 법을 알아본다.

◆소중한 사진 바로 인화=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바로 인화주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진인화 서비스업체 찍스의 경우 모바일 사진 인화 주문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인화 앱 2.0'에서 원하는 사진을 골라 주문하면 다음날 원하는 장소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소중한 추억을 포토북으로 간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하는 테마를 정하고 필요한 사진을 고르면 멋진 포토북을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클라우드 앨범도 유용=이마저도 귀찮다면 자동으로 사진첩을 생성해주는 클라우드 앨범을 이용하면 편하다.

구글 플러스 스토리는 별다른 조작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주제·날짜 별로 분류해 트래블로그(travelogue)라고 불리는 여행사진첩을 만들어 준다. 등록된 사진들로 GIF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사진촬영 장소의 지도를 추가하는 등 자동편집을 통해 여정을 한 눈에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행사진관리 앱 '똑똑이카메라'을 이용하면 가족여행, 허니문 등 주제 별로 '여행 스토리방'을 만들어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다.

◆무선으로 사진 원본 저장=스마트폰, DSLR 등으로 찍을 사진을 외장하드에 무선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샌디스크의 '샌디스크 커넥트'는 한번에 최대 8대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해 사진·동영상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리된 사진은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기기는 물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킨들파이어 등에서 바로 스트리밍 해 볼 수도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벌써 여름 끝? 아쉽다면 여기서…

특급호텔, 힐링 패키지 등 다양한 늦여름 이벤트 마련

여름도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다. 특급호텔들이 여름이 아쉬운 이들을 위해 다양한 늦여름 이벤트를 준비했다.

◆도심 속 축제부터 힐링까지

서울 삼성동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도심 속에서 축제를 즐기길 원하는 고객을 위해 22일 단 하루 동안 '섬머 카니발'을 실시한다. 셰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음식과 와인, 칵테일 등을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으며 호텔의 다양한 레스토랑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레스토랑마다 선보이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인터컨티넨탈 대련 숙박권, 인터컨티넨탈 상하이 숙박권 등이 주어지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도 마지막 여름 밤 축제를 펼친다. 시원한 프리미엄 생맥주와 다양한 바비큐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트로피칼 나이트 페스트(Tropical Night Fest)'가 바로 그것. 22일과 23일, 29일과 30일 총 4일간 이어진다. 게다가 호텔 시로코 홀에서는 무제한 생맥주와 치킨 꼬치, 감자튀김 세트 등이 제공되는 '서머 브리즈(Summer Breeze) 프로모션'이 다음 달 9일까지 열린다.

롯데호텔부산은 9월 한 달 동안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늦여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2014 레이트 섬머(Late Summer) 패키지'를 마련했다. ▲웨이트, 섬머(Wait, Summer) 패키지 ▲여름의 끝을 잡고 패키지 ▲어게인, 섬머(Again, Summer) 패키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김해 롯데워터파크도 이용할 수 있다. 이 호텔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부산역 2층 여행센터에 레일 데스크를 설치해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팔래스호텔(사진)도 다음달 30일까지 뷔페&카페 레스토랑 스톤플레이트에서 여심을 사로잡는 '컬러 오브 섬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호텔은 여유롭고 편안하게 오후를 즐기는 여성들을 위해 점심 뷔페 이용 시 특별히 엄선한 인기 스파클링 와인 1잔을 제공한다. 또 프로모션 기간 중 매주 월요일에 여성 4인 이상 방문할 시에는 1인은 무료로 뷔페를 이용할 수 있다. 베스트셀링 레드 와인을 구매하면 할인과 선물 증정의 혜택을 받는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다채로운 이색 테마 이벤트를 준비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이른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다. 뮤직박스에서 DJ가 선사하는 추억의 음악을 들으며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추억여행 Part 1-추억의 뮤직박스'로 이벤트는 각각 28일과 29일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마지막 여름을 만끽하며 힐링하는 '늦여름 패키지'를 판매한다. 푸른 나무와 생태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화담숲 입장권이 포함된 '화담숲 패키지'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스파 입장권 등으로 구성된 '패밀리 스파 패키지'가 있다. 아이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객실을 다양한 테마로 업그레이드하는 '미타임(ME-TIME) 객실'도 이용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교황 방한 이후 관련 상품 인기!

관광공사·업계 공동 기획… 성지순례 코스 개발 총력

국내 천주교 성지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지를 중심으로 한 외국 관광객 유치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상품들은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업계가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공동 기획한 것으로 9월까지 판매되는 상품들이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14일부터 21일까지 타이베이, 홍콩, 하노이 등에서 757명이 이 상품을 이용해 방한했다. 이에 관광공사는 뉴욕, 마닐라, 토론토 등에서 출발하는 상품도 선보였다.

관광공사는 성지순례 코스 개발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스페인의 '산티아고순례길(Camino de Santiago)'을 벤치마킹해 지자체와 함께 '한국 고유의 순례자의 길(Camino de Corea)'을 개발·홍보해 치유와 힐링의 목적지로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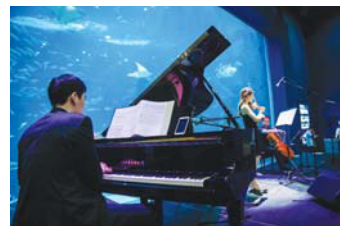
김홍기 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장은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을 계기로 안동의 관광객 규모가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교황 방한이 한국관광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교황 방문지를 중심으로 한 외국 여행객 대상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하노이에서 방한한 단체.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쿠아플라넷 콘서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가 오는 27일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 해양생물과 클래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쿠아플라넷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수준 높은 음악과 아쿠아리움이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비발디의 사계와 인어공주의 OST 등이 연주된다.

또 연주 외에도 탱고·왈츠 등의 스포츠 댄스와 뮤지컬 갈라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아울러 리조트는 콘서트 개최를 기념해 페이스북에서 관객 초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자연 속에서 즐기는 감성 뮤직페스티벌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서 '폴인어쿠스틱 2014' 개최

대명리조트가 다음달 20일 비발디파크에서 감성 뮤직페스티벌 '폴인어쿠스틱 페스티벌 2014'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에는 ▲장필순 ▲정준일 ▲노을 ▲범키 ▲디어클라우드 ▲용산 등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또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송영훈과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케르트가 함께 꾸미는 정통 클래식 무대와 이탈리아 퓨전 재즈 록 밴드 누 콰르텟이 선사하는 이색적인 무대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매표소 앞 가든스테이지에는 라이프 앤 타임, 낭만유랑악단, 흔적 등 아직은 생소하지만 실력만큼은 인정받는 밴드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두근두근 스테이지'가 마련되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환상적인 불꽃 쇼 피날레를 감상할 수 있다.

대명리조트는 페스티벌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위해 페스티벌 당일 서울과 비발디파크 간 무료 왕복셔틀을 운행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나뚜루팝, '헬로키티 세트' 판매

최고급 천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대표 노일식)이 헬로키티와의 콜라보레이션 일환으로 '헬로키티 리미티드 세트'를 22일 부터선착순으로 한정판매한다.

이 제품은 트리플컵 아이스크림(정가 6700원)과 헬로키티 머그컵으로 구성됐다.

헬로키티 머그컵은 헬로키티 캐릭터 얼굴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강조한 제품이다. 가격은 1만원, 머그컵 단품 구입 때 5000원이다.

한편 나뚜루팝은 지난 13일부터 헬로키티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헬로키티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신제품 '숨겨왔던 헬로키티의 고백'과 '헬로키티 아이스크림 케익'을 출시했다. 매장을 '나뚜루팝에 놀러온 헬로키티' 콘셉트로 앙증맞게 연출해 선보이고 있다.

트리플컵+헬로키티 머그컵 10,000 한정판매
단품 구매시 5,000

/정영일기자 prms@

"가격 차별에 몰카…" 비난 받는 피자 업체

Issue&View

임기응변보단 진정성을 가져야

여자화장실 촬영 사건 직원여부조차 파악 못한 가맹 본사
역차별·거짓 해명 하고, "개인적 취향·학교 교육 잘못 때문"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국내·외 일부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맹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업체들이 거짓 변명과 남의 탓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글로벌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은 지난 19일 이후 국·영문 홈페이지에서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 할인폭을 달리해 소비자들을 차별한다며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피자헛 홈페이지의 주문 링크를 보면 팬 피자인 페퍼로니를 비롯해 슈퍼슈프림, 치즈 피자의 가격은 라지 사이즈 기준 각각 1만9900원, 2만3900원, 1만8900원이라고 적어 놨다.

하지만 같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어 주문'(English Order) 버튼을 클릭하고 영문 사

이트로 들어 가면 같은 크기의 페퍼로니가 1만4900원, 슈퍼슈프림 1만8900원, 페퍼로니가 1만4900원로 판매하고 있다. 한국어 사이트보다 각각 5000원씩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피자헛 측은 공식 페이스북과 언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국·영문 홈페이지 접속자의 선호도가 달라)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팬 피자를 포함해 총 3가지 도우(팬·리치골드·치즈크러스트) 총 9종의 피자에 한해 무료 사이즈업 행사를 하고 있고"며 "국문 홈페이지에선 팬 피자를 제외하고 총 5가지 도우

(리치골드·크라운포켓·치즈크러스트·타코피자·크런치골드) 총 32종 제품에 대해 무료 사이즈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문 홈페이지에서는 사이즈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베스트 피자 할인, 통신사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와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피자헛 측의 해명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한글 사이트에서 통신사 20% 할인을 받아도 영문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영문 사이트에서 슈퍼슈프림의 할인율은 20.9%, 페퍼로니 25.1%, 치즈피자 26.5%이었다.

통신사 할인을 하니 국내 홈페이지가 저렴하다는 업체 측의 설명은 거짓말이 됐다. 오히려 할인 품목이 적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차별 논란으로 불똥이 튀도록 만들어 회사 측 해명이 고객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미스터피자 한 가맹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모씨(21)가 해당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자 화장실 내부에 검은 비닐 봉투에 구멍을 낸 후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오다가 발각돼 현재까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사인 MPK그룹 미스터피자 측은 사건 직후 언론에 '해당 매장에 직원을 파견해 상황파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스터피자 홍보팀 담당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이는 20대로 알고 있으며, 몰카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본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힘들지 않냐"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우리)사회의 책임이며 학교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를 맡은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이 피의자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종업원이다"라고 확인했다. 결국 가맹 본사가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 책임있는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보다는 '본사와는 관계없다'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전 점포에 이메일을 통해 직원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동충하초 함유 건강기능식 동아제약이 현미발아 동충하초로 만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동충일기'를 최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작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식품 원료로 인증받은 100% 국내산 현미에서 재배되는 동충하초를 주원료로 하고 있다. /동아제약 제공

강강술래 "독서로 '디지털 디톡스' 하세요"

길벗출판과 스마트폰 끄기 캠페인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하루 30분 스마트폰 꺼두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디지털 디톡스란 독소를 빼낸다는 디톡스(detox)에서 유래한 말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자는 의미의 운동이다. 강강술래 측은 하루에 30분이라도 디지털 기기를 끄고 독서하는 습관을 갖자는 취지에서 도서출판 길벗과 손잡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는 연봉·투자스타일·나이별로 뻔한 월급을 특별하

게 만드는 93가지 비책을 정리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과 가족·친구·연인은 물론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여행 정보를 총 망라한 '차없이 떠나는 주말여행 코스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원하는 책을 선정해 신청글을 남기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도서를 보내준다.

한편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품격과 정성을 담은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kg)는 5만원, 한우불고기2호(1.5kg) 7만원, 강강양념1호(16대) 9만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 9만원 등 10만원 미만의 중저가 실속세트를 파격가로 구매 가능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종가집, 저염김치 출시

대상FNF(대표 이상철·사진) 종가집이 3년간의 연구를 거쳐 나트륨 함량을 일반 김치 제품에 비해 50%까지 줄인 '매일매일 건강한 김치'를 선보였다.

자체 개발한 LS공법으로 제조돼 나트륨 함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김치의 아삭함은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 김치 유산균 발효액과 식물성 유산균 발효액 등 자사의 2step 특허 유산균을 첨가했으며, 해조칼슘과 태양초 고춧가루를 사용해 감칠맛 나는 김치 본연의 맛을 살렸다.

가격은 1만1000원이다. /정영일기자

오뚜기, 맨유와 '드림사커스쿨' 열어

오뚜기가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함께 하는 어린이 축구교실 '2014 드림사커스쿨-윈 투게더'의 시작을 알렸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이날 강남구 대치동 오뚜기센터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꿈을 응원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축구를 사랑하는 아이들의 도전정신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된 32명의 어린이들은 대치유수지체육공원에서 드와이트 요크와 맨유 코치진으로 부터 축구의 기본기를 배우고, 실제 8:8

환영사를 하는 오뚜기 함영준 회장.

축구경기를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전설적인 공격수'로 불리는 맨유의 드와이트 요크 선수는 "축구를 통해 한국의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축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첫 선을 보인 드림사커스쿨은 오뚜기가 맨유 코치들을 초청해 어린이들이 축구의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행사로, 22일까지 진행된다.

2400여명의 신청자 중 최종 선발된 96명의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3일간 맨유 코치들의 1:1 맞춤형 레슨, 8:8 토너먼트 대회, 골 넣기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석 어린이들은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맨유 사커스쿨 유니폼과 수료증·메달 등을 받는다.

/김리선기자 leesun@

톡톡 튀는 하드 캐리어 인기

막바지 여름휴가·추석맞아 매출 신장

막바지 여름휴가와 긴 추석 연휴에 국내·외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여행가방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견고한 소재와 기능은 물론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드 캐리어가 인기다.

실제로 옥션에 따르면 지난 7월1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최근 한 달간 여행가방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했다. 기내반입용 여행가방과 중형·대형 가방 판매는 각각 50%, 15% 늘었고 이민용 가방도 10% 더 판매됐다.

특히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어 탄력성이 좋아 잘 깨지지 않으며 가벼운 것이 장점인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캐리어가 속속 출시되며 내구성이 강한 하드케이스 제품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옥션에서는 기내반입용 가방의 경우 하드케이스는 55%, 천·소프트 케이스는 40% 판매가 늘었고, 중형·대형 가방 역시 하드케이스가 20% 판매된 반면 천·소프트 케이스는 5% 하락했다. 이와 함께 각자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의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아메리칸 투어리스터'(사진)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큰 충돌에도 쉽게 가방이 깨지거나 내용물이 손상을 입지 않는다. 특히 라임컬러의 기내용 캐리어는 옥션의 베스트 상품으로 올랐을 정도로 인기다. '닷드랍스(Dot Drops)' 캐리어도 젊은 층에서 선호되는 제품이다. 다양한 색상의 스티커들을 캐리어 표면의 도트 위에 붙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자신만의 DIY 캐리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준하 옥션 패션팀장은 "공항패션이란 용어가 생길 만큼 공항에 갈 때도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여행 캐리어가 개성을 표출하는 소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최근에는 기능뿐만 아니라 심플하면서도 눈에 띄는 컬러의 여행 캐리어 수요가 늘고 있으며 구매자 중 20~30대의 비중이 46%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믹스매치' 마케팅 '주목'

유아+레저·뷰티+헬스 등 업종간 협업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 전해 호평

최근 유통업계에 이종업체 간 제휴를 바탕으로 한 '믹스매치'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브랜드가 공동 마케팅에 주력,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혀 다른 업체 간의 교류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이색적으로 전달해 매출 증대는 물론 감성적인 교류까지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용 카시트 전문기업 순성산업은 스파 리조트 리솜스파캐슬과 손잡고 23일 '안전하계(夏季)'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차량 이동과 물놀이가 많은 휴가철 가족 안전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순성산업과 리솜스파캐슬은 안전하게 캠프에서 아이를 태운 차량의 안전 운전법과 물놀이 안전을 교육한다. 또한 순성 차량용 안전스티커와 천천향 식사권을 증정하고, 구명조끼도 무료로 빌려줄 예정이다. 특히 순성 카시트 체험존을 마련, 제품을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는 광동제약과 여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전국 스킨푸드 매장에서 '프리미엄 상추오이 워터리 라인'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광동제약의 '뷰핏 스파클링 타임'을 무료로 나눠준다.

제로투세븐의 수유·이유 브랜드 토미티피는 중식 레스토랑 크리스탈 제이드와 함께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미티피는 명동 소공점·무역센터점 등 7개의 크리스탈 제이드 매장에 토미티피의 이유식기 '매직매트' '셀프 위닝볼' '보온보냉 스트로우컵' 등을 비치한다. 이와 함께 '토미티피 이유식 가이드'를 두고 유용한 이유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미티피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제휴 서비스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컬러 마케팅' 시초, 엔시아가 돌아왔다 코리아나 화장품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 세니떼 뷰티샵 명동점에서 '엔시아 에이징 컷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코리아나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레드 에너자이징 캠페인'을 진행, 31일까지 전국 세니떼 뷰티샵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엔시아 제품 체험 기회와 피부 상담을 제공한다. /코리아나 화장품 제공

'노 와이어 브래지어' 인기몰이

건강·옷맵시 살리고 작은 가슴에도 OK

올여름 여성들 사이에서 '노와이어 브래지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여성들의 속옷 구매 패턴을 분석한 결과 노와이어 브래지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와이어가 주는 압박으로부터 가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혹은 여름철 옷맵시를 살리기 위해 노와이어제품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대에서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 동기 대비 20대 노와이어 브래지어 판매량은 91% 증가했고 30대의 경우 67% 증가했다.

비비안에서는 올해 12개의 노와이어 브래지어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규모이며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보면 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가슴둘레 75~80의 마른체형용 브래지어 판매량 변화가 눈에 띈다. 올 여름 들어 가슴둘레 75~80 사이즈의 노와이어 브래지어 판매량이 72%나 늘었다.

과거 노와이어 브래지어는 옷맵시에 무신경한 4050 세대가 주로 착용한다는 편견과 가슴 크기가 큰 여성들을 위한 브래지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편안함과 함께 볼륨 기능을 강화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패션브랜드 '독자 경영' 잘나간다

품질 앞세워 매출 신장

최근 몇 년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기업들의 디자이너 중소업체 브랜드 인수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은 지난해 파리의 '막심 시모엔스' 지분을 인수한 것에 이어 패션 브랜드 'JW앤더슨'과 여성 구두 브랜드 '니콜라스 커크우드'의 지분도 사들였다. 기존 브랜드만으로는 젊은 소비자들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독자적인 경영을 고수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국내 브랜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995년 론칭한 여성복 브랜드 미샤(MICHAA)는 2010년 중국 진출에 성공해 현재 국내외 총 9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예상 매출액은 약 9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여성복 분야에서 20년 동안 독자 경영으로 살아남은 노하우에는 '품질주의'가 있었다. 경기 불황과 SPA 브랜드 강세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웰-테일러드 상품을 고집하는 장인정신으로 브랜드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이 브랜드 주요 매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20% 에서 33%까지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학철기자

metro entertainment E

K팝 미래 짊어질 글로벌 싱어송라이터

일본서 데뷔 앨범 발표한 주노 리

일본·미국서 성장 자유로운 감성·개성·실력 갖춰
사업수완도 겸비… "아시아 문화 전세계에 알릴 것"

K팝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 가수 주노 리(한국명 이준오·18)가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한국의 획일화된 가요 제작 시스템을 벗어나 해외에서 성장하며 자유롭게 흡수한 감성과 음악 실력을 첫 번째 미니앨범 '주노 리(Juno Lee)'에 담았다.

20일 아이튠즈에 먼저 공개된 앨범은 다음달 3일 일본에서 오프라인으로 출시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디 음반 유통·제작사이자 매니지먼트사인 라스트럼의 레이블 저글러에서 음반이 나온다.

자신의 이름을 건 셀프 타이틀이 말해주듯 주노 리는 5개의 수록곡 중 3곡을 작사·작곡했다. 전곡의 편곡과 연주·녹음 작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창의적인 일을 좋아해 음악에 빠지게 됐고, 6학년때 밴드를 결성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들과 일본으로 이주해 4년간 살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음악을 했어요. 기타·피아노·드럼·베이스를 독학으로 배웠고 곧 작업도 집중적으로 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음악 관계자를 만났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인맥을 넓혀갔다. 3년 전 현지 음반 관계자들에게 자작곡을 들려주고 유명 프로듀서들로부터 음반 작업은 물론 뮤직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 배웠다.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완전히 매료시킨 세계였어요. 그때 음악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중학생 때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서기도 했고, 한국과 일본의 유명 가수들이 참가하는 대형 페스티벌의 백스테이지를 눈으로 보면서 비전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16세 때 음반 출시 제의가 왔지만 서두르지 않고 내실을 다졌다.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의 퍼트니스쿨에서 고교생활을 하면서 일본에서와 또 다른 음악적 영감을 쌓았다. 한국과 일본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제의도 받았다.

"제게는 학업이 중요했고, 나름대로 세운 음악 활동 계획이 있었어요. 특히 실력면에서도 준비가 된 다음 도전하고 싶었죠."

최근 3년간 30~40곡의 자작곡을 만들었다. 일본 대형 음반 기획사인 에이벡스 출신의 유명 프로듀서 준 하라다가 헤드 프로듀서로 주노 리의 데뷔 앨범을 도왔다. 팝 소프트록 '플라이어웨이', 얼너터티브 소프트록이자 타이틀곡인 '러브 윌 파인드 더 웨이 백 홈', 펑크록 '유어 라이즈' 등 다양한 록 장르의 자작곡이 실렸다.

이 외에 1990년대 일본 인기곡 '입맞춤', 영국 팝 가수 릭 에슬리의 '네버 고나 기브 유 업'을 새롭게 편곡해 실었다. 이그자일과 작업한 타카로트 등 실력파 프로듀서들이 편곡 등을 맡아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어린 시절 막연히 꿈만 꾸다가 막상 앨범이 나오니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일본의 프로듀서들이 많이 도와줬지만 앞으로는 더욱 제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토대로 저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요."

주노 리의 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누가 들어도 공감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문세 선배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한국적인 감성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일렉트로닉, 소프트록을 웅장한 브라스나 국악과 결합하는 시도도 해보고 싶고요. 우리의 전통문화, 역사, 지혜까지 음악에 담고 싶어요. 가사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직접 쓸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그는 경영학 전공을 1순위 목표로 삼고 있다.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 음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낙농업이 발달한 버몬트주의 특색을 살려 엘리(elm lea)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나이답지 않은 당찬 사업 수완도 지녔다.

"대중적이면서 자기 색깔을 잃지 않는 브루노 마스, 무대 위 퍼포먼스와 무대 밖 언행이 탁월한 마이클 부블레와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사업적인 마인드도 늘 가지고 있어서 음악과 사업 모든 면에서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해낼 겁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tvN 목요드라마 '잉여공주' 김하니(조보아)와 권시경(송재림). /CJ E&M

tvN 일요드라마 '삼총사' 용골대(김성민)와 박달향(정용화). /CJ E&M

TV로 뛰어든 '인어공주' '삼총사'

유명 원작 동화·소설에 현대사회·조선시대 결합 색다른 재미

대중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TV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최근 tvN은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잉여공주'와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삼총사'를 선보였다.

'잉여공주'는 제목 그대로 잉여 인간으로 취급받는 20대 취업준비생이 된 인어공주의 고군분투기다. 주인공 에이린(조보아)은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인어공주로 물에 빠진 '왕자님' 권시경(송재림)을 구해준다.

하지만 권시경은 동화와 똑같이 인어공주가 아닌 인간 윤진아(박지수)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믿는다. 이에 에이린은 왕자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안마녀(안길강)의 약을 먹고 인간 김하니가 된다.

'잉여공주'는 극 초반 동화와 같은 구성으로 흘러갔지만 에이린이 김하니가 돼 대한민국 서울에 두 발을 내딛으면서 달라진다. 김하니가 둥지를 튼 곳은 사법고시 장수생, 3년차 취업준비생, 기러기 아빠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숙집(셰어하우스)이다.

특히 2층에 사는 3년차 취업준비생 이현명(온주완)은 매일같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쓰지만 한 번의 면접기회를 얻기 조차 힘들다. 오랫동안 그의 곁을 지켜왔던 여자친구 윤진아는 대기업에 취직한 이후 사회에서 '잘나가는 남자' 권시경에게 눈을 돌리고 '백수 남친' 이현명에게 이별을 고한다.

시청자들은 이현명의 처지에 크게 공감하며 연애조차 포기해야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 청춘들의 슬픈 현실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제작진은 "'잉여공주'는 이 시대 청춘들의 현실과 고민을 속 시원하게 꼬집으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총사'는 조선 인조시대를 배경으로 한양에서 무과에 도전하는 강원도의 가난한 양반가 출신 박달향(정용화)이 자칭 '삼총사'인 소현세자(이진욱)와 그의 호위무사 허승포(양동근)·안민서(정해인)를 만나 조선과 명·청 교체기로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오가며 펼치는 액션 로맨스 활극이다.

'조선판 삼총사'라는 기대에 대해 송재정 작가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과 소현세자의 이야기가 반반 섞여있다고 보면 된다"며 "극 초반에 시청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삼총사'라는 명쾌한 아이콘을 빌려왔다. 역사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삼총사' 이야기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인물은 실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감하게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현은 비운의 세자이지만 드라마에선 밝은 면이 많이 나오고 용골대 캐릭터는 강빈(서현진)에 관한 한 줄의 기록을 보고 상상해서 만들었다"며 "달타냥이 엄청난 다혈질 캐릭터지만 달향이는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였고 또 바람둥이가 아닌 순정파로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작가의 설명대로 지난 17일 베일을 벗은 '삼총사'는 소설과 역사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야기였다. 한복을 입은 삼총사의 모습과 소현세자와 강빈 사이의 묘한 분위기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객점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국악버전의 '빠빠빠'는 극에 재미를 더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CJ E&M PD는 "김병수 PD가 퓨전사극다운 특별한 배경음악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며 크레용팝의 '빠빠빠'를 국악버전으로 만들어보자고 아이디어를 냈다"며 "시청자들이 큰 호응을 보내줄 지 몰랐다. 앞으로도 색다른 재미요소들이 등장할 예정이니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HOT PHOTO

'건강돌' 씨스타 화끈한 화보 씨스타 효린과 보라가 사이판에서 촬영한 앨범 화보를 공개했다. 20일 씨스타의 공식 트위터에는 효린과 보라의 '아이 스웨어' 화보가 게재됐다. 효린은 세차장을 배경으로 빈티지한 섹시미가 드러나는 바캉스룩을, 보라는 사이판의 눈부신 햇살 속 파스텔톤의 크롭탑과 비키니를 매칭한 의상을 선보였다. 씨스타는 26일 스페셜 앨범을 공개한다. /양성운기자 ysw@

"천정명 오빠랑 19세 차이 몰랐죠"

OCN '리셋' 김소현 1인2역 로맨스 호흡

아역배우 김소현(**사진 왼쪽**)이 19살 연상 천정명(**오른쪽**)과 호흡을 맞춘 소감을 전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OCN '리셋' 제작발표회에는 천정명·김소현·박원상·신은정과 김평중 PD 등이 참석했다.

김소현은 "천정명 오빠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나이차가 19세라는 걸 알고 놀랐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며 "제가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이고 천정명 오빠가 동안이니 큰 괴리감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현은 차우진(천정명)의 첫사랑 승희와 불량 여고생 조은비 등 1인2역에 도전한다. 김소현은 "승희는 우진의 기억 속에 봉인된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몽환적인 이미지로 등장한다. 반면 은비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천정명은 "김소현과 19세 차이란 말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다이어트 등 외모관리에 신경 썼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리셋'은 최면술을 쓰는 검사 차우진이 15년 전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끊은 첫사랑 승희와 꼭닮은 여고생 은비를 만나면서 봉인된 기억을 추적해 나가는 수사 스릴러 장르다. 첫 방송은 오는 24일 오후 11시다.

/김지민기자

脫 신데렐라 생활밀착 얘기에 공감♥

'연애의 발견' 정유미·'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비현실 연애보단 가능성 있는 로맨스에 더 박수

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스토리가 사라지고 있다. KBS2 월화극 '연애의 발견'과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두 작품 속 여자 주인공은 영리하게 연애한다. 그들의 생활형 대사와 행동은 여성 시청자의 연애 지침서가 되고 있다. '꽃보다 남자'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이 가난한 여성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신분 상승하는 꿈같은 이야기를 그려 큰 인기를 얻었던 것과 다른 현상이다.

비현실적인 연애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능성 있는 사랑 이야기가 보기 편하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애의 발견'은 tvN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를 집필한 정현정 작가의 작품이다. '연애의 발견'은 '로맨스가…'의 지상파 버전이라 할 만하다. 연애사를 공유하는 친구들, 잠자리에 얽힌 남녀 관계, 욕구를 표현하고 실천해야 하는 여주인공의 설정이 유사하다.

그러나 고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시대가 원하는 리얼한 드라마' '추억이 떠올랐어요' 등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실적인 장면과 대사, 에피소드에 시청자는 "내 얘기"라며 공감한다. 여주인공 한여름(정유미)의 내레이션도 극의 재미를 더한다. 이별한 이유와 밀당의 기술을 내레이션을 통해 이야기하며 시청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

'괜찮아…'의 공효진은 쿨한 연애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성적인 대사들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효진이 연기하는 지해수는 섹스 공포증을 앓고 있다. 지난주 장재열(조인성)과 사귀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병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선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설정이다.

지해수의 대사와 행동은 직설적이다. 사랑하는데 치부로 여길 수 있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여자로서 당당해 보이는 이유다.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효진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성(性)에 대해 '넌 어리니까 몰라도 돼'하는 분위기 때문인지 섹스라는 단어를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아이들이 'SEX'라는 단어로 낙서하는 것"이라며 "미국 드라마는 괜찮고 한국 드라마는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드라마는 모든 면에서 자유롭고 솔직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노골적인 단어를 재미로 삼는 작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KBS2 월화극 '연애의 발견' 정유미. /예고 영상 캡처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SBS 제공

박해진 中 '최고 공익 배우상'

한국 배우 최초 모친수조 행사 참석

배우 박해진이 중국의 대표 재단 모친수조 행사에 한국 배우 최초로 참석했다.

모친수조 홍보대사인 박해진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 옹화궁에서 열린 재단 행사와 공익 시상식에 등장해 현지 매체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중국 아동을 사랑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성룡·온조윤·서회옥·역소용을 비롯한 300여 명의 배우와 그 자녀들, 중국 주석 시진핑 희망소학교, 홍군소학교 학생들이 자리를 빛냈다.

박해진은 이날 '최고 영향력 있는 공익배우상'을 받았다. 성룡이 카메오로 출연하는 할리우드·중국 합작 영화 기동식에도 참석해 축하하는 의리를 보이기도 했다.

모친수조는 중국 부녀발전기금회에서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선 재단이다. 서부 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빈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중국 내 거대한 공익 행사다.

그동안 성룡·강원려·봉소강·장국려 등 많은 중화권 배우들이 참여했으며 물이 없는 지역에 물통 저장 용기를 만들고 깨끗한 물을 주는 일에 앞장서 왔다. /전효진기자

박해진 중국 대표 재단 모친수조 참석. /더블유엠컴퍼니 제공

엑소 카이, 태민 솔로 지원

솔로 활동 중인 그룹 샤이니의 태민(사진)이 엑소의 카이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2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1일 오후 6시 방송되는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태민과 카이가 '프리티 보이'로 호흡을 맞춘다"며 "카이는 '프리티 보이'에 랩 피처링으로 참여했으며, 태민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민은 '엠카운트다운'에서 '프리티 보이' 외에도 이번 앨범 타이틀곡 '괴도'까지 총 2곡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태민은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각종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곡 무대를 선보이며 솔로 활동을 이어간다. /양성운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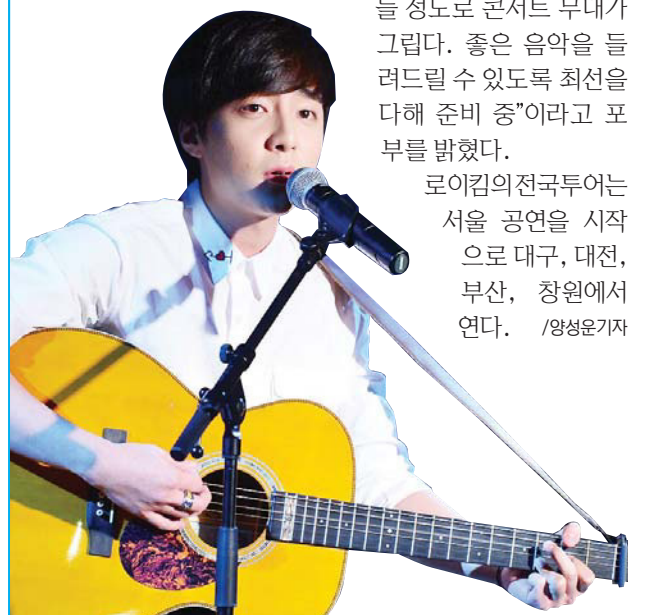
로이킴 5개 도시 라이브투어

가수 로이킴(사진)이 오랜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연다.

올 가을 정규 2집으로 컴백을 예고한 로이킴은 오는 10월 25~2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 '2014 로이킴 라이브 투어:홈'으로 전국투어 여정을 시작한다.

로이킴은 '슈퍼스타K 4'의 우승을 비롯해 지난해 '봄봄봄' '러브 러브 러브' 등을 히트시키며 감미로운 멜로디와 목소리로 사랑받았다. 이번 전국투어에서는 히트곡은 물론 가을에 발매 예정인 새로운 앨범 수록곡들을 부른다.

또 콘서트 타이틀이 '홈'인 만큼 콘서트장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로이킴은 "정말 밥만 먹고 콘서트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콘서트 무대가 그립다.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로이킴의 전국투어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부산, 창원에서 연다. /양성운기자

1500만 돌파 '명량' 얼마나 벌었나?

한국영화 최초 1000억대 매출… CJ·감독 막대한 수익

한국 영화계의 최근 화두는 단연 '명량'(감독 김한민)이다. '명량'은 지난달 30일 개봉과 동시에 흥행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개봉 18일째인 지난 16일 '아바타'(1362만)의 기록을 넘어 역대 흥행 1위에 올랐으며 19일에는 1500만 관객을 기록하며 영화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흥행 성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명량'이 벌어들일 수익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명량'에는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총 제작비 180억원이 투입됐다. 손익분기점은 600만명이다. 개봉 1주일 만인 지난 5일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또한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명량'이 19일까지 벌어들인 누적 매출액은 1166억원이다. 이 가운데 부가세 10%와 영화발전기금 3%를 제외한 약 1015억원을 극장과 투자배급사가 부율 합의에 따라 절반씩 나눠 갖게 된다. 여기에 10%의 배급수수료와 총 제작비를 제외하면 투자사의 이익은 약 276억원이다.

투자사와 제작사 간 수익 배분은 계약에 따라 나뉜다. 업계 관례인 6대4로 수익을 나눌 경우 CJ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19개 투자사는 166억원을, 제작사 빅스톤픽쳐스는 110억원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

특히 빅스톤픽쳐스는 김한민 감독이 직접 차린 회사인 만큼 영화의 제작사 수익 대부분은 김한민 감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들의 러닝 개런티는 제작사 측에서 나간다. 최민식·류승룡이 러닝 개런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확한 수익은 개봉이 끝난 뒤 알 수 있다. 아직 영화가 상영 중인데다 개봉 이후 부가판권 시장에서 올릴 수익까지 고려하면 '명량'의 흥행 수익은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민 감독은 "100억 방석에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만큼 허수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명량'의 수익은 의미 있게 쓰이면 좋겠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영화 투자나 개발을 위해 쓰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을 통해 의미 있게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량'은 매출액에서는 '아바타'를 아직 뛰어넘지 못한 상황이다. '아바타'는 3D로 상영돼 128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매출액이 '아바타'를 넘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루시' 안 할 이유가 없는 영화"

최민식 할리우드 진출 소감

20일 시사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민식(왼쪽)이 뤽 베송 감독의 칭찬에 쑥스러운듯 웃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배우 최민식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화제가 된 영화 '루시'(다음달 4일 개봉)가 20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국내에 첫 공개됐다. 이날 시사회에는 뤽 베송 감독과 최민식이 참석해 영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최민식은 "그 동안 외국 작품 섭외에 대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건 아니었다. 다만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에 그런 딜레마를 극복하며 외국 작품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못 느꼈다"고 해외 영화 출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설명했다.

'루시'를 선택한 계기는 "한국어로 연기해도 된다는 편안함"과 "작품에 대해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뤽 베송 감독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감독님이 아시아의 평범한 배우일 뿐인 나를 직접 찾아와 권위 의식 없이 오로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며 출연 제안을 해 감동적이고 감사했다. 이 작품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뤽 베송 감독은 "최민식은 예전부터 존경했던 배우라 정말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며 "다음에도 꼭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작품에서 최민식은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과 함께 연기를 펼쳤다. 이날 공개된 영화는 한국어와 영어로 서로 연기를 주고 받는 두 배우의 모습이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최민식은 "스칼렛 요한슨의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연기를 오롯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짜릿했다"며 "배우가 서로 연기하는데 있어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해외 영화 작업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최민식은 "외국 작품을 한 게 배우로서 연기 생활의 출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뤽 베송 감독처럼 도전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창작자들과 배우들과 다시 작업할 수 있다면 이런 경험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다.

한편 최민식은 이날 시사회에서 '명량'의 흥행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너무 과분하고 실감이 안 난다. 다만 이 영화가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영화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뿌듯하다"고 말했다. /장병호기자

민족대표 민요 의미 공연으로…

'잃어버린 아리랑을 찾아라' 22·29일 무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연이 찾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함께 오는 22일과 29일 국립국악원과 성남아트센터에서 '융복합 아리랑-잃어버린 아리랑을 찾아라'(사진) 공연을 개최한다.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에는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승리와 희망을 표현했다. 이번 공연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변하고 있는 '아리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악을 교과서에서만 접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효과와 일반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스토리텔링으로 공연은 만들어졌다. 춘사 나운규가 연출한 영화 '아리랑'의 필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티브로 삼았다. '아리랑'의 상징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3편의 동화 이야기, 그리고 배우 남명렬이 갑자기 사라진 '아리랑'을 찾는 설정을 담았다.

경기명창 이춘희, 가은일 해금 플러스, 여우락에서 뜨거운 무대를 이끈 이희문과 정은혜가 참여해 사주아리랑, 밀양아리랑, 긴아리랑 등 전국에서 불리는 다양한 아리랑을 들려준다.

'아리랑'은 아리랑 또는 그와 유사한 발음의 어휘가 들어있는 후렴을 규칙적 혹은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부르는 노래다. 가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제 또한 개방돼 있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다. 2012년 12월5일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신청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병호기자

날씨

아담은 진흙, 인간은 옥수수로 빚었다?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사람은 세상만사 대부분을 자신의 잣대로 본다. 때문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음식도 비슷하다. 내게 익숙한 음식은 맛있고 신이 보내준 선물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맛도 없고 엽기적인 음식으로 취급한다. 옥수수가 그랬다. 지금은 누구나 맛있게 먹지만 한때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옥수수는 원산지가 남미다. 남미의 고대 마야인과 중미 멕시코의 아즈텍 주민에게는 주식이었다. 때문에 마야인은 옥수수를 신이 환생한 작물이라고 여겼다. 또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진흙으로 아담을 빚은 것처럼 마야 신화에서는 창조의 신이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다. 남미 원주민들에게 옥수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에게 옥수수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숙종 때 중국어 통역서인 역어유해에 옥촉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돼 있으니 17~18세기 무렵이다. 잎 사이에 뿔처럼 생긴 꾸러미가 달렸는데 그 속에 구슬 같은 열매가 있고 맛은 달고 먹음직스럽지만 곡식 종류는 아니라고 했다.

옥수수가 곡식이 아니라는 것은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곡식이 부족한 산골마을에서는 식량으로 먹었지만 옥수수는 주로 군것질거리였다. 때문에 옛날 조상들은 배고플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작물 정도로나 여겼다.

그러니 조선 후기의 명필 추사 김정희는 자신의 문집인 완당집에 일흔 넘은 노인이 옥수수를 먹고 지낸다는 말을 듣고는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을 남겼고, 정약용 역시 곡식의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17가지 곡식 중 옥수수를 꼴찌에서 두 번째로 꼽았다.

원산지에서는 신이 부활한 작물, 인류의 기본이라고 여겼던 작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못해 먹는 작물, 간식에 불과한 식물로 바뀌었으니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만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3		1	5		
					8	6		3
8	3		9					
	8			1	9			
	9			2			5	
			5	3			2	
					2		4	5
4		2	7					
		7	6		3			8

		8		7	9			
	5		2		4			
9					5	8	7	6
4		3			6			
	7						3	
			4			5		7
3	4	7	5					8
			3		1		5	
			8	4		6		

스도쿠 정답

7	2	9	3	6	1	5	8	4
5	4	1	2	7	8	6	9	3
8	3	6	9	5	4	1	7	2
2	8	5	4	1	9	3	6	7
6	9	3	8	2	7	4	5	1
1	7	4	5	3	6	8	2	9
3	6	8	1	9	2	7	4	5
4	1	2	7	8	5	9	3	6
9	5	7	6	4	3	2	1	8

1	3	8	6	7	9	2	4	5
7	5	6	2	8	4	3	1	9
9	2	4	1	3	5	8	7	6
4	1	3	7	5	6	9	8	2
6	7	5	9	2	8	4	3	1
2	8	9	4	1	3	5	6	7
3	4	7	5	6	2	1	9	8
8	6	2	3	9	1	7	5	4
5	9	1	8	4	7	6	2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미술 교사인데 화가 등단 잘될까요
천직으로 알고 정진하면 좋은 결실

Q zkvpemahd 75년 7월 2일 음력 오후 8시

결혼은 하였고 미술교사입니다.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화가로 등단하고 싶은데 막연하지만 진로개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양화 전공이며 대학졸업 후 어학연수는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동양화가든 서양화가든 꼭 외국에 가서 공부해야할 것은 아니겠지만 할아버지가 한학을 하셔서 주변분들 사주와 산소자리를 봐 주시던 것이 아련히 기억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지만 선생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꼭 사주가 아니어도 선생님께 저의 부족한 것을 조언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A 상담을 올리실 때 남녀 구분을 안 하셨는데 글의 내용이 여자분 이라고 보고 아니면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달력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날짜를 세듯이 살면서 흐르는 시간을 사주 학에서는 운의 변화라고 합니다. 삶에는 변화하는 것도 많고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변화에 포함됩니다. 노력에 의한 변화는 청사진이 펼쳐지고 머지않은 미래의 사진이기도하며 현실이 됩니다. 생각을 펼쳐서 꿈을 현실로 이루어 나가십시오. 2014년 11월, 2015년 2월에 지인과 돈거래는 유의 하십시오. 가깝게는 2016년 2018년 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는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귀하의 생일지가 '일락서산(日落西山:서산에 해가 짐)에 백호 살이 겹쳐 있는데 충살을 맞아 이중 삼중으로 운이 나쁠 때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 가 있는 구조입니다. 묘신 귀문 살이 조상 궁에 있어 할아버지가 사주와 산소자리도 봐 주시던 분으로 이 기운은 귀하에게도 이어져 책임감이 강하고 희로애락의 감정표출이 선명하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수기(水氣)가 없어 편고(偏枯)하고 "태양이 서산"을 넘어가니 스스로 좋은 인연을 물리치고 고독한 길을 택하며 부부 궁에 막힘이 많음을 실감하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배우자궁에 백호 살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신상의 액(厄)이 염려되겠으나 지피지기백전백승이라고 하였으니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세상살이를 헤쳐 나가도록 하세요. 천라지망살(天羅地網殺: 하늘과 땅에 그물을 침)로 교육계통을 천직으로 여기고 자신의 계발을 꾸준히 하십시오. 본인은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겸손의 처세이니 미래의 결실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1일 (음 7월 2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허술한 충고는 독이 된다. **60년생** 사람 확실히 얻으려면 기득권 내려놓아라. **72년생** 묵묵히 일하면 오해는 풀린다. **84년생** 현실성 없는 꿈은 접어라.

49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겨 야호~. **61년생**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73년생** 이익이 터무니없이 많으면 다시 생각할 것. **85년생** 궁하면 통하는 법이다.

50년생 허세 부리면 지출만 늘어난다. **62년생** 삶의 신선한 변화 즐겨라. **74년생** 강자와 맞불을 놓으면 잃는 게 많다. **86년생** 술자리서 시비 거는 사람은 피하라.

51년생 배우자 청은 못이긴 척 들어주라. **63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격이다. **75년생** 공금 사용할 땐 조심 또 조심~. **87년생** 상큼한 희소식이 당도한다.

52년생 인기가 올라 용이 된 격이다. **64년생** 큰일을 하려면 분위부터 띄워라. **76년생** 해묵은 과제의 해법을 찾는다. **88년생** 귀인을 만난 잠자던 꿈이 꿈틀꿈틀~.

53년생 원하는 것만 하려는 생각 버려라. **65년생** 밑천 까먹던 사업은 반전 기미 보인다. **77년생** 앞이 막히면 좌우에 눈 돌려라. **89년생** 서두르면 성과내기 어렵다.

42년생 자녀가 반가운 소식 전한다. **54년생** 사욕 때문 제 무덤 파지 않도록~. **66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78년생** 나를 위한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

43년생 화해 원하면 먼저 마음 열어라. **55년생** 걱정한 일은 전화위복된다. **67년생** 뜻을 이루려면 남과 차별화 하라. **79년생** 주거문제로 찜찜한 걱정이 생긴다.

44년생 마음 비우면 편안해진다. **56년생** 훈계할 땐 번지수 잘 찾아라. **68년생** 힘들었던 긴 시간은 서서히 끝이 보인다. **80년생** 생각도 못한 복병을 조심할 것.

45년생 사소한 일은 그냥 넘겨라. **57년생** 추진한 일은 7부 능선을 넘는 격이다. **69년생** 직장인은 맡은 일 서둘러 진행할 것. **81년생** 쿨한 벗이 있어 든든하다.

46년생 작은 만족에 행복은 넘친다. **58년생** 묵묵히 제몫을 하는 자녀가 고맙구나. **70년생** 술자리가 길면 시비수가 생긴다. **82년생** 일이 뜻대로 풀려 즐거운 출근길~.

47년생 고혈압자는 조심 또 조심~. **59년생** 자다가 벌떡할 경사가 생긴다. **71년생**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생길수도. **83년생** 애정문제로 막혔던 일은 숨통이 트인다.

손흥민 챔스전 결정적 한방

마수걸이 역전 결승골… 현지 언론 극찬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뽑아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손흥민은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의 파르켄에서 열린 레버쿠젠(독일)과 코펜하겐(덴마크)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원정 1차전에서 결승골이자 자신의 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레버쿠젠은 3-2 승리를 거뒀다.

이날 레버쿠젠은 전반 5분 슈테판 키슬링이 선취골을 터트리며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후 코펜하겐은 전반 9분 마티아스 요르겐센이 헤딩 동점골을 터트린 데 이어 전반 13분 프리킥 상황에서 다니엘 아마르테이가 역전골을 넣었다.

전반 30분 레버쿠젠은 벨라라비가 손흥민이 볼 경합중 따낸 볼로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동점으로 팽팽하게 맞선 전반 42분 손흥민은 칼하노글루의 패스를 따라 페널티박스 안으로 침투한 뒤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코펜하겐의 골망을 가르며 3-2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레버쿠젠은 2시즌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

손흥민은 이날 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골로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지웠다. 손흥민이 기록한 골에 대해 독일 언론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후 독일 언론 키커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손흥민을 내걸었다.

'레버쿠젠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2014~2015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쁨을 누리는 손흥민의 사진을 게재했다. 키커는 스포츠 드렉터 루디 펠러의 "이번 경기는 시즌 초반 가장 중요한 게임이었다"는 말을 인용하며 손흥민의 역전 결승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유럽축구연맹은 공식 홈페이지에 "손흥민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 결승골을 넣으며 레버쿠젠에 승리를 안겼다"고 평가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버쿠젠의 승리를 전하면서 "손흥민은 덴마크의 수도에서 레버쿠젠이 안정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칭찬했다.

한편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레버쿠젠은 27일 홈에서 코펜하겐과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른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류현진 DL 이후 첫 캐치볼

몸 상태 점검 30일 출전가능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캐치볼을 했다.

다저스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류현진은 20일 캐치볼을 하며 엉덩이 부위 근육을 테스트했다. 류현진은 스탠 콘티 트레이너와 공을 주고받은데 이어 절친한 동료인 후안 우리베와도 캐치볼을 했다. 우리베 역시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

류현진(아래)이 후안 우리베와 캐치볼을 하고 있다. /ESPN로스앤젤레스 마크 섹슨 기자 트위터

류현진은 마운드가 아닌 파울 라인 밖에서 캐치볼을 했다. 아직 정식 투구를 할 상태는 아니지만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류현진은 지난 1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 도중 오른쪽 엉덩이 중둔근과 이상근에 염좌가 발견돼 부상자명단에 올랐다. 15일자로 날짜를 소급 적용해 30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 부상 전까지 성적은 13승6패, 평균자책점 3.28이었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팔꿈치나 무릎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회복 상태를 보고 복귀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

추신수 3경기 만에 멀티히트

'추추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웨이버 절차 결과 발표 후 나선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와 인터리그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를 쳤다.

추신수가 한 경기에서 2안타 이상 때린 것은 16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경기(5타수 2안타) 이후 3경기 만이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1에서 0.243으로 올랐다. 출루율은 0.341을 유지했다.

텍사스는 3-3으로 맞선 10회말 2사 1,2루에서 지안카를로 스탠턴에게 끝내기 우전 적시타를 얻어맞고 3-4로 졌다.

한편 추신수는 이날 경기에 앞서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행중인 얼음물 뒤집어쓰기 캠페인 'ALS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추신수는 팀 동료 알렉스 리오스, 레오니스 마틴과 함께 얼음물 세례를 받았다.

/양성운기자

시즌 첫 마드리드 더비 무승부

'월드컵 득점왕' 로드리게스 첫 골

2014-2015시즌 첫 마드리드 더비는 승자 없이 마무리됐다.

'지역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0일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후반 36분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선제골로 레알 마드리드가 리드했지만 6분 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라울 가르시아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 우승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코파델 레이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마드리드를 연고로하는 두 팀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이었다.

레알마드리드 아틀레티코마드리드 1차전. /AP연합

양팀은 첫 경기부터 총력전을 펼쳤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가레스 베일, 카림 벤제마, 토니 크로스, 사비 알론소, 루카 모드리치(이상 레알 마드리드), 마리오 만주키치, 코케, 가비, 가르시아(이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출격했다. 하지만 이날 양 팀은 무승부를 기록, 아틀레티코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슈퍼컵의 향방을 가리게 됐다.

유리한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는 원정팀 다득점 원칙이 주어진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차전에서 0-0으로 비기기만 해도 우승트로피를 차지한다. 2차전은 오는 23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다.

/양성운기자

프로야구 전적 20일

■목동

팀				계
L G	000	100	010	2
넥센	103	001	00X	5

△승=마정길(3승 3패 6홀드) △세=손승락(2승 4패 26세이브) △패=장진용(1패)

■문학

팀				계
두산	012	000	000	3
S K	010	002	30X	6

△승=전유수(4승 2패) △세=윤길현(2승 3패 2세이브) △패=이현승(3승 3패) △홈런=박정권 19호(2회1점·SK)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20일

포항 스틸러스	0	0	FC 서울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 1.2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